

설악~금강권 연계관광개발 활성화를 위한
『설악권관광특별법』 제정과 설악산국립공원관리권 이양 건의문 채택의 건

의안 번호	70
----------	----

발의년월일 : 2003. 3. 19.

발 의 자 : 김진국 의원외 6인

1. 제안이유

- 정부가 10여년 전부터 국책사업으로 내세워 온 『설악~금강권 연계관광 개발』이 본격 가시화 되면서 금강산 육로관광 및 금강산 관광특구 지정 등 금강산 위주의 개발정책만 추진되고 있어,
- 하루속히 설악~금강권을 연계한 관광개발 사업계획을 구체화하고 설악권 활성화를 위한 설악권관광특별법 제정과 함께 설악산국립공원 관리권을 지방정부에 이양하여 줄 것을 촉구하는 건의문을 채택하여 관계 요로에 전달하고자 함.

2. 주 문

- “ 성명서 별첨 ”
- 성명서 발송 (6개기관) : 청와대, 국회, 통일부, 문화관광부, 새천년민주당, 한나라당

설악 ~ 금강권 연계 관광개발 활성화를 위한
『설악권관광특별법』 제정과 설악산국립공원관리권 이양 건의(안)

2003년 계미년 한해에도 막중한 국정수행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심
초사 애쓰시는 _____님께 10만 속초시민의 대표기구로서 충심
으로 감사와 경의를 표하오며, 아울러 더욱더 건승 하시기를 기원
하는 바입니다.

존경하옵는 _____님!

우리 속초시는 전체면적 104.91㎢중 68.4%가 설악산국립공원으로
편입되어 있으며, 인구의 80%이상이 관광 서비스업에 종사하고 있어
관광산업에 대한 의존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실정으로서 사실상 지역
경기 부양은 설악산에 의존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것 입니다.

설악산은 전국 제1의 관광지로 각광을 받으면서 그동안 수많은 국
내외 관광객이 찾아오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관광지로 발전하였으나,
각종 규제에 의한 경쟁력의 약화로 침체의 늪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
으며 최근에는 태풍 「루사」로 인한 수해피해와 계속되는 폭설로 인
해 이 지역 상경기가 급격히 하락하여 설악권의 활성화 대안 모색이
시급한 실정에 있습니다.

속초시는 최근 정부의 "주5일 근무제의 가시화" 와 접근도로망의
구축, 문화체험형 관광상품 개발로 다양한 볼거리, 먹거리, 즐길거리
개발 등 적극적인 마케팅 전개로 연간 1,200만명 이상의 관광객이 찾
아오고 있고 5,160억원 이라는 시 예산의 2배가 넘는 막대한 관광수
입을 창출하고 있으나 최근에는 설악권의 관광객이 점진적으로 감소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설악산 지역은 1976년 「설악동 집단시설지구」로 조성되면서 본격적인 관광지로 첫발을 내딛었으나, 이후 30여년 동안 각종 개발 규제로 인해 주변환경이나 시설면에 있어 낙후성을 면치 못하고 있는바, 이러한 여건을 가지고는 점차 고급화 양질화의 서비스를 기대하는 관광객을 맞이 하는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난해 1월 23일 정부의 「금강산 관광여행 경비 보조」 발표는 이곳 주민들을 커다란 한탄과 자괴감에 빠지게 하였으며,

한때 이 지역 주민들은 「금강산여행경비지원 반대투쟁위원회」를 결성하여 대정부 투쟁등 반대 시위를 전개하기도 하였으나 지역 주민들이 우려한 바 대로, 정부의 금강산 여행경비 지원은 관광숙박객이 현저하게 줄어드는 결과를 초래하여 이 지역 주민들이 엄청난 생활고를 겪는등 어려움에 봉착해 있는 실정입니다.

- 학생 수학여행단 : 30% 감소(1,000개교 300천명→700여개교 200천명)
- 일반 관광숙박객 : 60% 감소

이러한 상황에서도 「금강산 특구」개발은 가시화 되었고, 정부시책을 감안하여 이곳 주민들은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면서도, 10여년전부터 대통령 공약사업으로 내세워온 「설악~금강권 연계 관광개발」은 아직도 미진한 채 금강산만 개발하게 된다면,

금강산은 관광특구와 경제특구를 동시에 이루게 되어 금강산 지역에만 국내외 기업의 투자가 집중될 것이고, 상대적으로 설악산은 공동화되고, 급속한 경기침체로 설악산지역 뿐만 아니라 설악권 3개 시군은 경제의 악순환으로 빈사상태에 놓이게 될 것은 불보듯 뻔한 일입니다.

이곳 속초시민 뿐만 아니라 설악권 3개 시군의 주민들은 「금강산 특구」 지정과 더불어 「설악산 활성화 대책」이 동시에 마련되어 「금강산 특구」 개발을 설악산과 연계하는 방안으로 추진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따라서, 「설악권~금강권 연계 관광개발」의 당위성과 설악산의 활성화 대책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이곳 설악권의 3개 시군에는 충분한 관광숙박시설을 확보하고 있어 별도의 숙박단지 조성 등 추가 비용을 절약할 수 있는 경제적 효과가 크며, 지역단위로 먹거리촌과 볼거리, 즐길거리가 형성되어 관광객의 구미에 맞는 관광을 즐길 수 있는 장점이 내재되어 있습니다.

⇒ 호텔 11개소 945실, 콘도 21개소 6,508실, 여관 300개소 8,500실 등 16,000여개의 객실에 70,000명 이상이 동시에 숙박 할 수 있는 숙박시설이 완비되어 있습니다.

둘째, 「설악권~금강권 연계 관광개발」이 아닌 금강산 특구만의 개발은 설악권을 공동화하고, 상권의 침체뿐 아니라 주민의 80%이상은 생활의 터전마저 잃고 종국에는 설악권은 파산하게 되고 말 것입니다.

그러므로 「설악권~금강권 연계 관광개발」 활성화를 위해서는 「설악권 관광특별법」을 제정하여 설악권 관광특구내의 내·외국인 투자자에게 인센티브 제공을 통한 투자유치를 할 수 있는 법적인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셋째, 설악산국립공원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는 현재 국립공원 관리체계의 이원화로 공원관리 행정에 공동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으므로, 설악권 3개 시군의 주민들은 『설악산국립공원 관리권을 지방정부에 이양』하여 타당성 있는 관리와 개발이 병행하여 이루어 지는 것을 바라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일들은 결코 강원도와 속초시 등 지방자치단체의 자구 노력만으로는 불가능하다고 사료되오니,

_____님의 적극적인 관심과 설악권 주민들의 애절한 마음을 헤아려 『금강산 특구』 개발만이 아닌 『설악권~금강권 연계 관광개발』 활성화를 위해서 중앙정부에서 반드시 『설악권관광 특별법』 조기 제정과 『설악산 국립공원 관리권을 지방정부에 이양』하여 주실 것을 건의 드립니다.

부디 금년 한해에도 계획한 모든 국정 과제들이 성공적으로 이루어 지고 바라시는 모든 일들이 성취될 수 있으시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리면서, _____님의 무궁한 건승을 바랍니다.

2003. 3. 29.

속 초 시 의 회	의 장	최 준 집
	부 의 장	김 성 근
	의 원	박 명 수
	의 원	고 학 재
	의 원	김 정 한
	의 원	홍 우 길
	의 원	김 진 국